

번역문학과 문화변용

- 이솝우화(Aesop's Fables)의 중문(中文) 버전에 대한 통시적 고찰 -

김 소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19세기 후반기 중국인을 위한 계몽 텍스트: 《伊娑菩喻言》, 《海國妙喻》 |
| II. 17세기 초 천주교 포교를 위한 수사 전략: 《畸人十篇》, 《七克》, 《況義》 | V. 1903년 국제정치 입문서: 《伊索寓言》 |
| III. 1840년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 어학 교재: 《意拾喻言》 | VI. 결론을 대신하며: 20세기 아동문학 정전으로서의 《伊索寓言》 |

I. 들어가는 말

‘번역’의 역사는 길지만 그것이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구권에서 번역이론이 크게 발전하면서 학술연구로서 번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 결과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 새로운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번역을 원천언어(source-language) 텍스트를 목표언어(target-language)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간주했던 편협한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아가 번역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로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최근 번역학

* 부산대학교 강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방법론의 하나인 문화학적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문화가 번역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 양상을 고찰해보려 한다. 즉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로 번역된 텍스트가 목표문화권에서 흡수되는 과정과 번역텍스트가 갖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에 치중할 것이다. 한편, 원천텍스트가 원천문화에서 갖는 위치 혹은 번역텍스트가 원천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는 편폭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본고에서 서구권 번역학계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연구방법에 기대는 이유는 중국 자체의 번역이론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구한 번역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직역/의역을 양 축으로 한 논쟁과 엄복(嚴復)의 ‘충실함(信), 유창함(達), 우아함(雅)’로 명명되는 번역원칙이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연구의 방법과 이론적 틀이 발전하지 못했다.

본고는 중국의 번역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솝우화(Aesop's Fables) 중문(中文) 버전(version)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축은 중국 번역사상 3번째 고조기에 속하는 청 왕조 후반기인 1840년에서 1911년까지에 맞춘다.¹⁾ 물론 그 전후시기의 번역양상도 본고의 논지전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서술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번역문학사상 드물게도, 이솝우화는 몇 세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텍스트로 명대(明代) 후반부터 시작된 서양문학의 번역이 시기별로 갖는 특징을 온전히 함축하고 있다.²⁾

1) 텐진(天津)외국어대학 Lin Kenan(林克難)에 따르면 중국 번역의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불경 번역 위주였던 148년에서 1037년까지이며, 2기는 서구의 과학기술 번역 위주였던 명대 후반, 3기는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번역이 위주였던 청대 후반, 4기는 러시아 문헌번역이 위주였던 1950~60년대, 5기는 개혁개방의 기점인 197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번역의 수와 양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Lin Kenan, Translation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in China, in Tymoczko and Gentzler, eds. *Translation and Pow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2) 160~194쪽.

사실 번역은 서구지식을 장악한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번역텍스트의 연구에 있어 번역을 주도한 주체의 문화적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텍스트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중국의 번역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매개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은 서양 선교사, 서양 상인, 일본인, 중국인 등으로 대분되며, 중국인은 다시 청 왕실, 관료계층, 유신파지식인, 기독교개혁파, 일본유학과, 서양유학과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번역그룹이 가진 다양한 국적과 상이한 정치 문화적 특성은 근대중국의 번역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내는데 있어 복잡함을 더해준다. 본 연구는 중서 문화의 교류가 서구가 중국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단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서구와 중국 쌍방 모두가 문화교류에 적극적이었으며 문화교류를 추진했던 매개자인 번역 그룹은 자신의 정치 문화적 지향점에 따라 서양을 선택적으로 수입하면서 서양적이면서도 중국적인, 또 서양적이지 않으면서 중국적이지도 않은 문화의 경계지대를 만들어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테면 외국문학의 번역이 시작되었던 명말시기 예수회 선교사 번역그룹은 유럽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문화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이중성을 지니게 되었고, 교황청에 중국문화를 알리는 동서간의 문화전파자로 활약했다.³⁾ 또, 이들 서양인 선교사의 번역을 도왔던 중국인 보조자들 역시 서구문화에 호의적

2) 중국의 번역문학사에서 몇 세기를 걸쳐 동일한 텍스트가 끊임없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서구문학의 번역은 대부분 1898년 무술변법이 실패하고 난 후 20세기 초기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번역은 중국인의 중체서용(中體西用)적 관점으로 인하여 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되었다.

3) Eva Hung, Cultural borderlands in China's translation history, in Eva Hung, ed. *Translation and Cultural Chang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5) 50~52쪽.

인 태도를 취했으며 특히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근대 중국에서 봉건왕조의 변화를 이끈 촉매제 역할을 했던 번역 역시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이었다. 중국에서 번역은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ibridity)을 띤 어떤 새로운 것, 변이를 탄생시켜 부패한 사회에 수혈을 해 줌으로써 부흥의 길을 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런데 번역텍스트에서 주목할 것은, 번역자가 원작에 개입함으로 인해 번역텍스트에 억압의 기제가 작동하여 번역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배제되거나 축소되고 반면 번역의도에 부합하는 부분은 강조 혹은 과장된다는 점이다. 번역텍스트에 억압과 배제의 기제가 작동함으로 인해 그것은 원작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특정한 번역그룹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목표언어 문화권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습우화의 중문번역은 17세기 초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번역그룹은 예수회 선교사와 중국의 지식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번역은 이들의 공동 작업에 의지했다. 19세기로 오면 개신교 선교사가 중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번역텍스트는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번역그룹은 번역전략에 있어 중국의 유가문화에 적응하는 적응주의적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습우화는 중국적 색채가 많이 가미되었다. 20세기로 가는 전환점에 접어들면 서양인의 활약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인 특히 유신파 지식인 그룹에 의한 번역이 급증했고, 그들은 독자적 번역에 충실한 직역보다 전체적인 의미의 전달을 중시한 자유로운 번역방법인 의역을 더 선호하였다. 그로인해 이습우화는 본래의 성격과 기능과는 달리 그들의 필요에 의해 전유(appropriation) 되었다.

II. 17세기 초 천주교 포교를 위한 수사 전략: 《畸人十篇》, 《七克》, 《況義》

이솝우화는 애초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이었을까? 대만의 번역학자 리스슈에(李奭學)는 미국 고전학자 페리(Ben Edwin Perry)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무상의 교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제(話題) 참고서였다고 한다.⁴⁾ 즉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 연설가의 범례(範例)수첩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우언’을 강연할 때 예증의 수단으로 인용해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애당초 이솝우화는 그리스 수사학 혹은 화법(話法)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이솝우화가 갖는 서구적 기원의 영향인 듯, 서양 예수교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중문으로 번역 소개된 이솝우화 역시 천주교 포교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17세기 초기의 마테오 리치의 저작 《기인십편(畸人十篇)》, 디다세 데 판토자의 《칠극(七克)》, 니콜라스 트리코의 《황의(況義)》 등에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킬 때 예증의 수단으로 이솝우화가 차용되고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이솝우화를 지목한 이유는 그것이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중국인의 의식개조에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식의 개조와 계몽의 목적은 후대의 이솝우화의 중문 버전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구와 중국 사이에서 쌍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서구우월주의 의식이 강했던 서양인들과는 달리 중국문화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교황청에 중국문화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신들이 중국에서 펼치는 중국 적응주의적 선교방법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선교방법은 1773년 로마 교황청의 반대와 외면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나, 이들이 남긴 저작은 그리스 우화가 중국에 전래되는

4) 李奭學, 《得意忘言—翻譯文學與文化評論》(臺北: 三聯書店, 2007), 134~135쪽.

초기단계에서 중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변모한 양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608년 베이징(北京)에서 출판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이름 利瑪竇: 1552~1610)의 저작 《기인십편》은 서양의 종교관과 철학사상을 중국 사대부들과의 대화와 문답의 형식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이 책에서 그는 성경, 유럽역사와 위인 이야기, 그리고 동물우화 등을 인용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승이었던 플라누데스(Manuel Planudes)의 《그리스 선집》 개정판⁵⁾에 수록되어 있는 이솝에 관한 이야기를 순전히 기억에 의존하여 직역해서 실었다고 한다.⁶⁾ 마테오 리치는 이솝을 중국에 최초로 소개하였는데, 라틴어의 독음에 근거하여 이솝을 ‘阮瑣伯’라고 음역하였다.⁷⁾ 《기인십편》에 번역된 이솝우화는 모두 4편으로 「餓狐」, 「獅與狐」, 「富家埋金」, 「馬思報鹿仇」 등이 그것이다. 가령, 제4편 「항상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사후의 심판에 대비하라(常念死候, 備死後審)」에서 ‘배고픈 들여우’(「餓狐」) 우화를 인용하였다. 배고팠던 들여우가 닭장에 몰래 들어가 닭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은 탓에 살이 썩어서 들어갈 때의 조그만 닭장구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살을 뺀 뒤에 나왔다는 줄거리인데, 마테오 리치는 들여우(野狐)를 탐욕스런 인간에 빗대어 재화는 인간들이 생전에 가지려고 분투하는 것이지만 본래 그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덕(德)’임을 설파하였다.⁸⁾ 유가 문화에서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인 덕(德)은 니콜라스 트리코(nicolas trigault,

5) 1479년에 최초의 인쇄본이 나온 플라누데스 선집으로 인해 이솝우화는 근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6) 조너선 D. 스펜스 저, 주원준 옮김,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서울: 이산, 2006), 189쪽.

7) “이솝은 상고시대의 명사였는데, 불행하게도 본국이 정벌당해 포로가 되어 썬토스에게 팔려갔습니다.(阮瑣伯氏, 上古名士, 不幸本國被伐, 身爲俘虜, 鬻於藏德氏.)”

8) 마테오 리치 저, 송영배 역주, 《교우론 외 2편》(서울: 서울대출판부, 2000), 158~160쪽.

중국이름 金尼閣: 1577~1629)의 《황의》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북풍과 태양이 각자 능력을 뽐내는 이야기인 「북풍과 태양(北風與太陽)」의 결미부분에 “사람을 다스림에 형벌을 사용하지만, 덕을 사용하는 것만 못하다(治人以刑, 無如用德)”라는 유교적 평가를 삽입시켰다.¹⁰⁾ 이 부분은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의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형벌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함이 생기고 또 (善에) 이르게 된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와 “정치를 함에 덕으로써 한다(爲政以德)”를 쉽게 연상시키게 만든다. 또, 「위와 다리(胃與脚)」는 위와 다리가 신체 부위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다투는 이야기인데, 트리고는 결미부분에서 “천하는 한 몸과 같으니, 임금은 머리고 신하는 배이며 오사¹¹⁾와 사지는 모두 백성이다. ...사물은 각기 서로에게 보답하니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모두 손해를 입는다.”¹²⁾라는 구절을 첨가하고 있다. 이는 유가의 정명설(正名說)을 응축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¹³⁾ 한편, 디다세 데 판토자(Didace de Pantoja, 중국이름 龐迪我: 1571~1618)의 《칠극》에서는 중국문화의 색채가 짙은 용어를 번역어로 선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寓言’이라는 번역어이다. 이는 《장자(莊子)》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토자가 최초로 ‘寓言’을 ‘fable’의 번역어로 채택한 것이다. 그가 만든 번역어는

9) 명(明) 천계(天啓) 5년(1625년) 서안(西安)에서 출간했으며, 니콜라스 트리고가 구술하고 복건(福建) 천주(泉州)사람 장갱(張賡)이 운색하였다. 모두 22편의 이습우화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10) 이에 비해 1955년 周作인이 번역한 《이색우언(伊索寓言)》에서는 “이 이야기는 타이르는 방법이 항상 강요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這故事說明, 勸說常比強迫更爲有效)”로 되어 있다.

11) 오사(五司)는 ‘이(耳), 목(目), 구(口), 비(鼻), 촉감’을 말한다.

12) “天下一體, 君元首, 臣爲腹, 其五司四肢, 皆民也……物各相酬, 不則兩傷.”

13) 陳義海, 常昌富, 「東海西海——從明清間儒學與天學的交涉看中國比較文學之淵源」, <http://www.cccn.org/article/teo/cul/2009-01-18/2556.html>

‘寓’, ‘譬喻’, ‘喻言’ 등과 경쟁하다가 결국 그것들을 도태시키고 최후의 승자가 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의 중국 문화에 대한 적응주의적 책략으로 인해 이습우화는 중국문화의 외피를 쓰게 되었다. 물론 유가 문화의 색채가 농후한 용어와 문구를 취한 데에는 그들의 번역을 돕고 윤색을 맡았던 중국인 보조자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Ⅲ. 1840년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 어학 교재: 《意拾喻言》

번역은 일반적으로 목표언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외국 텍스트를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이하게도 19세기 무렵까지 중국인들은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외국문화를 수입해 들어오는 번역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원천언어 문화권에 속한 서양인이 번역에 활발하게 뛰어들었다. 《의습유언(意拾喻言)》을 편찬한 로버트 톰은 당시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하듯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중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서양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을 반문명 국가(semi-civilized nation)로 인식하는 정도가 고작이었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나 중국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유럽으로 향하게 만들려는 서구중심적 관점에서 출발한 접근이었다.¹⁴⁾

1840년 광저우(廣州)에서 간행된 이습우화의 중문버전인 《의습유언》 역시 서양인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애당초 서양인이 중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어학 교재용으로 출간되었다. 이는 과거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술에 삽입되는 방식에서 진화한 것으로, 중국 최초의 완전한 이습우화 번역본이라 할 수 있다. 로버트 톰(Robert Thom: 1807~1846)은 영국 외교관으로 중국 남부연해도시에 왔는데, 그는 당시 중국어를 공부할 적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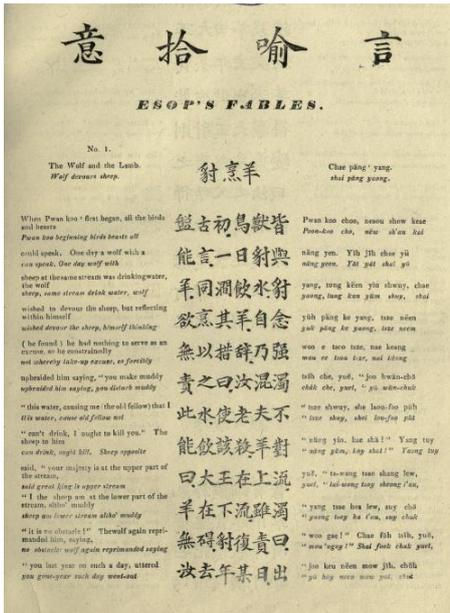
14) “a shock may have been given causing all Asia to vibrate to it's centre!”
(preface)

교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서양인에게 익숙하면서도 평이한 이습우화를 번역할 것을 기획하여 자신의 중국어 교사 ‘蒙昧先生(Mun Mooy Seen-Shang)’의 도움을 얻어 《의습유언》을 세상에 내놓았다. 당시에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중국이름 馬禮遜)이 1823년에 편찬한 《화영사전(華英字典,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이 이미 있었으나 그것은 중국어 단어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고 있어 단어의 실제 활용사례를 익히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중문 저작을 중국어 교재로 직접 활용할 수 있었으나 초학자들은 원서를 읽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였다. 《의습유언》은 중국어 표현, 문법구조, 작문방법을 서양인에게 가르치기 위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유창하고 정제된 중국어를 선별하는데 신중했으며 문체는 간결하고 쉬운 6언(言) 중심의 문체를 채택했다. 핵심적인 중국어 표현을 정선하여 번역어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의습유언》은 초급 중국어 독본의 바이블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우아하고 세련된 문체로 인해 《의습유언》은 중국인 사회에서도 주목받았다. 대부분의 서양서적이 조각한 문체로 번역되어 번역텍스트가 중국인으로부터 외면당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한다.¹⁵⁾ 서양인에게 익숙한 텍스트를 문화변용의 전략을 통해서 중국화시킴으로써 서양인은 중국의 독특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또, 중국인은 중국적으로 변모한 이국의 텍스트를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즉 그것은 중국인에게는 완벽하게 자국화 된 텍스트였고, 서양인에게는 완벽하게 이국화 된 텍스트였던 것이다.¹⁶⁾

《의습유언》은 모두 82개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저본은 로저 레스트랑지 경(Sir Roger L'Estrange: 1616~1704)의 영역본(英譯本)이며,

15) Herbert A. Giles,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D. Appleton-Century Co, 1927) 429쪽.

16) Leo Tak-hung Chan, *Liberal Versions: Late Qing Approaches to Translating Aesop's Fables*, in David Pollard, ed., *Translation and Creation: Readings of Western Literature in Early Modern China, 1840~1918*,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57~79쪽.



‘意拾’은 ‘이솝’의 광동 발음의 음역이다. 이 책의 구성은 표지, 정오표(正誤表), 서문(preface), 머리말(introduction)¹⁷⁾, 주의(remarks), 목차, 중국어로 된 서문, 중국어로 된 머리말(小引), 참조와 해설(references and explanations), 본문, 주석 등의 순서로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번역자와 편집방식, 중국의 4자성어와 시가 한 수, 캠벨(Thomas Campbell)의 「와이오밍의 케르트루트(Gertrude of Wyoming)」의 일부분,¹⁸⁾ 스콧(Walter Scott) 경의 「애국자(The Patriot)」의 일부분,¹⁹⁾ 출판사와 출판년도, 후원자 명단 등이 적혀있다. 17쪽에 달하는 머리말(introduction)에서는 한자의 구조, 한문 문체의 분류, 허자(虛字)의 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의(remarks) 부분에서는 본서에서 사용한 한자 주음(注音)의 원칙 및 발음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참조와 해설(references and explanations) 부분에서는 이 책의 차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 문자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에서 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가지만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영어의 습관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는 중앙

17) introduction은 본문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진술, preface는 저술의 목적과 구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18) “Alas! poor Caledonia's mountaineer, That wants stern edict e'er, and feudal grief, Had forced him from a home he loved so dear!”

19) “Land of my sires! what mortal hand! Can e'er untie the filial band, That knits me to thy rugged strand!”

에 한 줄당 6자로 배열해놓았고, 우측에는 발음을 좌측에는 영문번역을 배치했다. 우측 부분에서 로마체로 표기된 발음은 남경방언이며, 이탤릭체로 표기된 발음은 광둥방언이다. 좌측 부분에서 로마체로 된 영문은 의역 (free translation)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탤릭체로 된 영어는 축자적이며 축어적 번역(literal and verbatim translation)에 입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月裡嫦娥”의 좌측에 직역으로 “*moon-within Chang'-go*”, 의역으로 “Chang-go the nymph of the Moon, (i.e. the Chinese Diana)”를 병기하고 있다.²⁰⁾

《의습유언》은 목표언어 문화권 중심의 번역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중국 신으로 대체했는데, 예를 들면 제우스(Zeus) → 북제(北帝)²¹⁾, 비너스(Venus) → 달 속의 향아(月裡嫦娥)²²⁾, 헤라클레스(Heracles) → 아미타불(阿彌陀佛)²³⁾ 등으로 바꾸었으며, 고사의 출처와 시대배경도 ‘산해경(山海經)’²⁴⁾, ‘반고초(盤古初)’²⁵⁾ 등으로 설정하였다. 또 중국어의 언어습관에 맞추기 위해 인칭대명사 ‘I’와 ‘you’를 문맥적 상황에 맞게 공(公), 형(兄), 족하(足下), 선생(先生), 존가(尊駕), 제(弟), 첩(妾) 등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번역했다. 그리고 경궁지조(驚弓之鳥), 예상우의(霓裳羽衣), 순망치한(唇亡齒寒) 등의 전고(典故)도 번역어로 채택하였다.²⁶⁾

20) No.64 「愚夫癡愛」

21) No.47 「蛤求北帝」

22) No.64 「愚夫癡愛」

23) No.56 「車夫求佛」

24) No.3 「獅熊爭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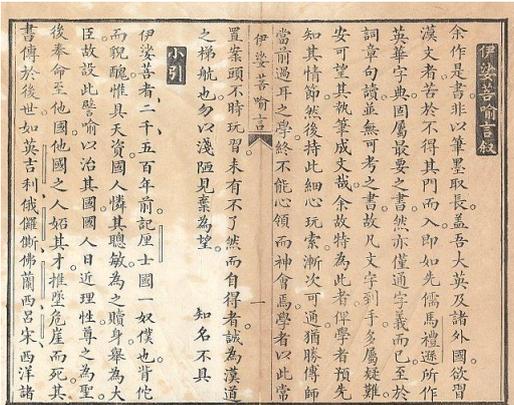
25) No.1 「豹烹羊」

26) 王輝, <伊索寓言的中國化—論其漢譯本《意拾喻言》>, 《外語研究》2008年第3期.

IV. 19세기 후반 중국인을 위한 계몽 텍스트: 《伊娑菩喻言》, 《海國妙喻》

에당초 《의습유언》은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 학습교재로 편찬되었으나,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그 텍스트의 계몽적 성격에 주목하여 중문(中文)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중국내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버전은 《이사보유언(伊娑菩喻言)》으로, 상하이 의 묵해서관(墨海書館, 영문명 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에서 영국선교사 머드허스트(Water Henry Medhurst, 중국이름 麥都思, 1796~1857)에 의해 1853년에 출판²⁷⁾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이사보유언》은 머리말(小引)을 통해 저자 이습과 이습우화의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습은 본래 노예신분이었으나 속신한 후 대신(大臣)이 되어 ‘우화’로 국민들을 계몽시켰다고 적고 있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등

서양 각국들이 모두 국어로 번역하여 계몽하는데 사용하였고 그것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이다.”²⁹⁾ 이습우화가 계몽을 목적으로 번역된 외국의 사례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27) 이후 1885년에 간행된 施醫院刻本도 있다.

28) 內田慶市, <談《遐邇貫珍》中的伊索寓言—伊索寓言漢譯小史>, 《遐邇貫珍》, 上海辭書出版社, 2005.

29) “如英吉利、俄羅斯、佛蘭西、呂宋、西洋諸國, 莫不譯以國語. 用以啓蒙, 要其易明而易記也.”

는 일본 동경에서 간행된 《한역이소보담(漢譯伊蘇普譚)》(1876년)의 서문에서 ‘寓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솝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본서를 간행하는 목적이 우화 장르에 속하는 대표작을 소개하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난다.

이솝우화는 단행본의 출간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하이관진(遐邇貫珍)》, 《만국공보(萬國公報)》 등에 게재되어³⁰⁾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나아가 일본에도 전파되었다.³¹⁾ 중국어 학습교재로서 번역된 《의솝유언》은 서양 상인과 기독교 문화의 밀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기독교 매체에 게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솝의 우화는 당대 중국인들에게 손쉽게 받아들여졌다. 이솝우화는 과거의 기독교 포교를 위한 수사적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혜를 일깨우는 계몽적 텍스트로 전변하였다.

19세기 중반 틈 계열의 이솝우화가 중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기반 위에서 1888년에 오면 이솝우화는 중국인에 의해 다시 혼종적 텍스트(hybrid text)로 변모한다. 그것은 천진시보관(天津時報館)에서 인쇄된 《해국묘유(海國妙喻)》인데, 표지에 “伊所布著, 張赤山譯”이라고 적혀 있고, 장적산(張赤山)이 쓴 서문과 검봉(劍峰)이 쓴 발문(跋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의솝유언》에서 발췌한 것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반 크르일로프가 창작한 우화, 그리고 중국인이 모방해서 만든 우화 등을 합해 모두 70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출처가 다른 우화가 섞여 있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 기독교 계통에서 발행했던 잡지매체에 게재된 우화에 원작자 표기가 없어서 이솝우화로 오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³²⁾ 이 책의

30) 《하이관진(遐邇貫珍)》에는 1853년~1855년까지 게재되었고, 《만국공보(萬國公報)》에는 1878년에 간행된 499호~517호까지 게재되었다.

31) 한국의 경우, 이솝우화는 1896년에 일본인의 도움으로 만든 최초의 신식교과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9편의 이솝우화가 소개되고 있다. 허경진, 표언복, 유춘동 편저,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서울: 보고사, 2009), 33~38쪽 참고.

32) 鮑欣, <伊索寓言의第三個漢譯本《海國妙喻》>, 《湖南教育學院學報》第17卷

편찬 동기는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리스에 이솝이라는 문사가 있었는데 그가 저술한 우화 책에는 1000여편이 수록되어 있고 사물에 빗대어 비유한다. ... 저작은 유럽에서 이미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왔으며 각국은 자기나라 언어로 다투어 번역했다. ... 최근 서양인이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많은 신문잡지에 게재하였다. 비록 번역한 것이지만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아직 모아서 책으로 엮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산실될까 걱정이 되어 내가 애써 70편을 수집해서 손으로 베껴 써서 출판하니, 여러 군자들께서는 차 마실 때나 술자리 뒤에 이야기거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사방에 전파되어 우매한 자를 깨우쳐 나쁜 일을 징계하고 착한 일을 권장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길 바라오며,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문득 깨닫도록 하여 마음을 감동시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몸과 행동을 검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제 마음이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³³⁾

이러한 서문의 설명이 없었다면 《해국묘유》는 형식면에서 서구의 우화가 중국전통 이야기를 모방했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동화현상이 두드러졌다. 편찬 동기가 중국의 고대소설의 경우처럼 유가경전의 보좌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었고, 동물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대화가 첨가되어 그것은 마치 옛날부터 있어오던 고전소설처럼 변모되었고, 그로인해 문화적 이질감이 완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대중의 성장으로 인해 도덕적 교화를 지도할 계몽 텍스트가 필요했으며, 간결한 형식과 재미있는 줄거리를 갖춘 우화는 그러한 용도에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우매한 중국인의 지혜를

第4期, 1999年 8月.

33) “希臘國有文士名伊所布，其所著寓言一書多至千百餘篇，借物比擬，…文章在西洲久已膾炙人口，各國以該國方言爭譯之，…近歲經西人翻以漢文，列於報章者甚多，雖由譯改而成，尚不失本意味，惜未彙輯成書，餘恐日久散失，因竭意搜羅，得七十篇，爰手鈔付梓以供諸君子茶餘酒後之談。庶可傳播遐邇，藉以啓迪愚昧於懲勸一端，未必無所裨益，或能引人憬然恍悟，感發歸正，束身檢行，是則寸衷所深企禱也” <清代木刻本《伊索寓言》>에서 인용, <http://px1966.blog.sohu.com/44537581.html>

깨우치게 하는 계몽서적으로 새로이 독해되었던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래도 백화체로 된 텍스트가 훨씬 쉬웠던 듯, 문언 문체상의 어려움을 없애 일반 대중에게 한층 접근시키고자 백화 번역본도 시도되었다. 그것은 1898년 우시(無錫)의 언론계의 명문장가인 구육방(裘毓芳: 1871~1904)에 의해 역술된 백화본 《해국묘유》이다. 구육방은 중국 최초의 백화매체인 《무석백화보(無錫白話報)》에 1898년 제1기에서 제24기까지 게재했다.³⁴⁾ 장적산이 편찬한 《해국묘유》는 변문(駢文) 색채가 강한데 비해, 구육방의 백화본은 장회소설체(章回小說體) 형식을 사용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우화로 변모시켰으며, 제목도 예를 들면 “은혜를 잊다(忘恩)”을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뽑아 주었는데 표범이 학의 은혜를 잊다(拔魚更刺豺忘鶴恩)”으로 바꾸었다.³⁵⁾ 중국장회소설의 형식과 그리스 우화의 내용이 결합되어 중국적 우화로 변모함으로써 대중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V. 1903년 국제정치 입문서: 《伊索寓言》

19세기 이솝우화의 번역은 표현수법과 형식상에 있어서 중국문화중심의 번역을 원칙으로 했으나, 20세기 초에 오면 의미와 내용까지 중국적으로 해석됨으로 인해 완벽한 전유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솝우언(伊索寓言)》은 번역어와 형식의 귀화 책략이 초래한 표면적인 중국적 동화를 넘어 20세기 초 국가존망의 위기라는 중국적 특수성이 개입되면서 중국의 외교문제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로 재진변하였다. 이 버전은 엄배남(嚴培南)과 엄거(嚴據)³⁶⁾가 구술하고 임서(林紓)가 필술했는데, 임서

34) 1898년 5월 11일에서 11월 16일까지(光緒 24년 3월 21일~8월 1일).

35) 그 예시문은 郭延禮,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7), 206~207쪽 참고.

36) 엄배남은 엄복(嚴復)의 조카였고, 엄거는 엄복의 장자로 영국에 유학한 후 주 프랑스 대사관의 참사를 역임했다.

광고란에 《이색우언》은 ‘국문류교과서(國文類教科書)’ 항목 아래 《문학초계(文學初階)》, 《마씨문통(馬氏文通)》, 《한문교수법(漢文教授法)》 등과 나란히 병기되어 있다. 《이색우언》에 대한 광고 문구는 ‘태서 각국의 모든 학당에서 본국의 문자로 번역하여 교재로 삼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임서가 매 고사마다 첨가한 평어(案語)에는 진실하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수십 폭의 삽화가 삽입되어 젊은이들을 계발시키는데 적합한 교과서라고 함으로써 이 책의 용도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다. 교과서로 용도가 결정된 것은 20세기 초기 근대적 출판업이 발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색우언》을 간행한 상무인서관은 1897년에 창설되었으나, 1902년 장원제(張元濟)가 경영과 편집을 맡게 된 이후로 ‘근대적 교과서 시리즈’를 출판함으로써 상해 굴지의 근대적 출판사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상무인서관이 일본에서 교과서 출판으로 큰 성공을 거둔 출판사인 일본 금항당(金港堂)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던 무렵으로, 금항당은 일본에서의 교과서 출판 경험을 상무인서관에 전수하면서 막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초등소학용 최신국문교과서가 1906년까지 모두 10권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출판사는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었다. 최신국문교과서가 출간되던 시기에 맞추어 이숙우화가 번역됨으로써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과서 시리즈와 연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책의 편집디자인에서도 문자가 삽화를 둘러싸고 배치된 점, 좌우측의 모서리 디자인, 한 면 전체를 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점, 표지 디자인 등에서 《이색우언》은 최신국문교과서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 배치와 편집디자인은 교훈적 성격의 우화 번역텍스트를 청 말의 근대적 교육시스템 개혁과정에서 탄생한 신식 교과서로 포장함으로써 중국인 독자들의 독해방식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청의 교육부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커리큘럼에 《이색우언》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³⁹⁾ 아무래도 《이색우언》 자체가 가진 문장의 난해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초학국문교과서로 소비되기는 무리였

고 일반대중을 위한 서양학문의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는 입문서로 소비되었던 것 같다.⁴⁰⁾ 가령, ‘群(social)’, ‘國群(nation)’, ‘公法(international law)’, ‘衛生(public health) 등의 번역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면서 서구적 개념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법(公法) 개념을 제비 우화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봄이 되자 제비가 바야흐로 인간세상으로 와서 동지를 지었다. 죄를 심문하는 법원 근처에 살았으며,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 뱀이 그것을 전부 잡아먹어버렸다. 제비는 돌아와서 통곡하며 말하길, 타향살이의 고통이 인간보다 심하구나. 이 법원에서 인간은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생각해보면 슬프지 아니한가.

외려(畏廬)가 말했다. 국제법 체계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강국(強國)이 위협을 가해 침범한다. (강국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눈앞에 드러난 상황이다. 호놀룰루의 사건을 볼진대, 중국인은 억울함을 당했으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 광명이 비치지 않는다. 미국은 문명화된 국가이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열강들은 잔혹하다고 여기지 않고 수수방관할 뿐이다. 미국인들은 금수를 다루듯 중국인을 다룬다. 그러므로 국가가 없으면 비참하다. 비록 어진 사람일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며, 비록 재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멸시 당한다. 저열한 인종이라고 부르면서 짓밟고 모욕한다. 정의는 조금도 실현되지 않으니, 그 슬픔이 깊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크다. 그런데도 우리 동포들은 여전히 멍청하게 있으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⁴¹⁾

39) 《學部官報》 134호, 1910년 10월 3일.

40) Michael Gibbs Hill, 앞의 책, 108~109쪽.

41) “燕方春依人而巢. 營與會鞠之堂. 一卵數子. 蛇食之都盡. 燕歸大哭曰. 吾在客之苦. 甚於人哉. 此間訊鞠之堂. 凡人有冤. 皆得申理. 而我獨否. 顧不哀哉. 畏廬曰. 不入公法之國. 以強國之威凌之. 何施不可. 此眼前見象也. 但以檀香山之事觀之. 華人之冤. 黑無天日. 美爲文明之國. 行之不以爲忤. 列強坐觀不以爲虐. 彼殆以處禽獸者處華人耳. 故無國度之慘. 雖賢不錄. 雖富不齒. 名曰賤種. 踐踏凌競. 公道不能稍伸. 其哀甚於九幽之獄. 吾同胞猶夢焉. 吾死不瞑目矣.” 《伊索寓言》(제8쇄; 上海: 商務印書館, 1913년 8쇄), 22쪽.

임서는 인간들이 사는 곳에 와서 동지를 튼 제비의 고통을 빌어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이주해 간 중국 노동자들이 당했던 고난을 폭로하였다. 그들의 고통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인이 가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외교적으로 무능력한 중국 정부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세계열강들의 비호를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국제정치에 문외 했던 중국의 일반 대중들은 제비 우화를 통해 근대 서구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체

계와 거기에 속하지 못한 중국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대의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 임서 버전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고사 뒤에 “畏廬曰~”로 시작되는 독특한 비평을 첨가시킨 점이다.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화에 중국과 서구열강이 맺는 정치적 상황을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비평의 분량이 길어지고 내용이 무거워짐으로 인해, 이숙 원천텍스트의 ‘moral’은 본문으로 흡수되어 약화되고 있다. 임서 버전의 비평은 아마도 중국전통의 역사서와 백화통속소설에 자주 사용되었던 평어 형식의 계승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자의 견해를 찬(贊) 혹은 평어(評點)의 형식으로 원문에 삽입하여 독자를 작자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는 전통적 글쓰기 방식은 고전경서와 중국전적에 해박했던 임서가 활용하기에 매우 손쉬웠을 것이다. 1898년에 출간된 엄복(嚴復)의 《천연론(天演論)》에서도 “復案~”으로 시작되는 엄복의 평어(評語)가 원문의 분량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달려있다. 국제정치에 작동하는 원리를 깨우쳐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복의



名希
士廬
伊索
寓言

一
商務
印書
館
印
行

有獅臥於叢莽，山鼠逸過，觸其題，獅怒，將撲殺鼠，鼠曰：能勿抵吾以罪，必報公，獅笑釋之，已而獵者得獅，繫以巨絙，鼠審其聲，為前獅也，嚙系而斷之，獅逸，鼠追呼曰：吾嚙幾膏公牙，公以為縱我者，縱鼠耳，今知獅亦有獲報於一鼠者耶，公此後請勿鼠我矣。

畏廬曰：處勢據權，思一人而忽獲其報，此間有之事，然權勢方盛，積仇積惡，而圖所以報者，不甯可慮耶，故小人之念私恩而報者，其積私仇，則亦

《천연론》과 임서의 《이색우언》은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천연론》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과학적 이론을 가져와 설명한데 비해, 《이색우언》은 허구적 우언을 빌어 와 풍유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색우언》은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외교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임서가 번역에 종사하게 된 정치적 이유는 자강을 통해 중화민족을 보존하려는 것이었고, 또 그는 동성파의 경제치용적 문예사상을 계승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번역자의 번역의도가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VI. 결론을 대신하며 : 20세기 아동문학 정전으로서의 《伊索寓言》

20세기 초기 중국이 국가존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난에 직면하면서 ‘계몽’담론은 자연스럽게 ‘구국’과 연계되면서 더욱 강조되었고, 교육성을 갖춘 아동문학의 번역은 번역의 가도에 들어섰다. 이는 근대적 출판문화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큰 번역시장이 출현한 덕분이기도 했다. 이습우화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번역자들이 주목한 결과 많은 버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 중 비교적 유명한 것은 진춘생(陳春生)이 관화(官話)로 편집한 《이삭역평(伊朔譯評)》으로 1909년 상하이 협화서국(協和書局)에서 활자본으로 출판되었으며 200편의 이습우언이 수록되어 있다.⁴²⁾ 또 1915년 상해 상무인서관이 출판한 손육수(孫毓修) 편역의 《이색우언연의(伊索寓言演義)》가 있다. 이 번역텍스트는 모두 133개의 우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역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 최신 판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고 한다. 이 버전은 당시 상무인서관이 출판 기획한 ‘연의총서(演義叢書)’ 시리즈 중의 하나이며, 언어문자방면에서 이해하기 쉬운 백화문으로 되어 있고 삽화도 100폭이나 들어 있다고 하다.⁴³⁾ 그로 인해 많은 독

42) 郭延禮, <中國近代伊索寓言的翻譯>, 《清末小說》 第19號, 1996年 12月.

자를 확보하여 1917년 재판을 찍어낼 정도였다. 학계에서는 임서의 버전과 함께 근대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이솝우화 버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1955년 저우쭈오런(周作人)이 프랑스 에밀 샹브리(Emile Chambry)의 1927년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이색우언(伊索寓言)》이 인민출판사를 통해 간행되었다. 샹브리 판본은 그리스어 원본에 프랑스 번역본이 달려있는 형식으로, 아동문학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편뚜어(鄭振鐸)가 1950년에 중법대학(中法大學) 도서관에서 빌려와 페이밍(廢名)을 통해 저우(周)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저우는 원천 텍스트에 있는 358편의 고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백화를 사용한 충실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60여개가 넘는 주석을 첨가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이후 1981년 루어니엔성(羅念生)과 천홍원(陳洪文) 등이 공역한 번역본이 인민문학출판사를 통해 다시 세상에 나왔다. 루어의 번역본은 독일에서 출판된 그리스어본을 중역(重譯)했으며 모두 330편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간명하고 유창한 백화로 번역되어 당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버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말에서 근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솝우화는 문화의 교차지대에 놓여 있던 번역그룹이 자신의 정치문화적 의도에 따라 각각의 해석을 내놓으며 중국적으로 변용되었다. 장차 21세기 중국에서는 이솝우화에 대한 재해석과 고전 비틀기가 또 어떠한 양상으로 출현하게 될는지 궁금증을 뒤로하며 시론적 성격을 띤 문장을 끝맺기로 한다.

43) 張澤賢, 《中國現代文學翻譯板本聞見錄》(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8), 9~12쪽.

44) 郭延禮, 앞의 논문.

< 參考文獻 >

- 로렌스 베누티 저, 임호경 옮김,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책들), 2006.
- 수잔 바스넷 저, 김지원·이근희 옮김, 《번역학: 이론과 실제》(서울: 한
신문화사), 2004.
- 조너선 D. 스펜스 저, 주원준 옮김,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서울:
이산), 2006.
- 마테오 리치 저, 송영배 역주, 《교우론 외 2편》(서울: 서울대출판부), 2000.
- 허경진, 표언복, 유춘동 편저,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서울: 보고
사), 2009.
- 뵘또하 저, 박유리 역, 《七克》(서울: 일조각), 1998.
- Mun Mooy Seen-Shang, Robert Thom, 《意拾喩言》, Canton Press Office,
1840.
- 《伊娑菩喩言》, 上海施醫院刻本, 1885.
- 林紓, 嚴培南, 嚴據 譯述, 《伊索寓言》(上海: 商務印書館), 1913.
- 內田慶市, 《遐邇貫珍》(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 郭延禮,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7.
- 張澤賢, 《中國現代文學翻譯板本聞見錄》(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8.
- 李爽學, 《得意忘言—翻譯文學與文化評論》(臺北: 三聯書店), 2007.
- 郭延禮, <中國近代伊索寓言的翻譯>, 《清末小說》 第19號, 1996년 12월.
- 王輝, 《伊索寓言的中國化—論其漢譯本《意拾喩言》》, 《外語研究》 2008
年 第3期.
- 鮑欣, <伊索寓言的第三個漢譯本《海國妙喩》>, 《湖南教育學院學報》 第
17卷第4期, 1999年 8月.
- <清代木刻本《伊索寓言》>, <http://px1966.blog.sohu.com/44537581.html>

- Herbert A. Giles,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D. Appleton-Century Co. 1927.
- ed. David Pollard, *Translation and Creation: Readings of Western Literature in Early Modern China, 1840~191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8.
- eds. Tymoczko and Gentzler,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 and 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2.
- ed. Eva Hung, *Translation and Cultural Chang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5.
- Michael Gibbs Hill, *Lin Shu, Inc.: Translation, print culture, and the making of an icon in modern China*, Columbia University, 2008.

<中文提要>

在中國的翻譯史上，伊索寓言的翻譯始於明朝末期的第二次翻譯熱潮時期，由耶蘇會傳教士和中國文人合譯而問世。伊索寓言的漢譯是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中具有先驅作用的事件。本文通過曆時性研究方法，着重敘述伊索寓言漢譯本翻譯規範的演變和文化適應。

最早將伊索寓言進行漢譯的是明朝末期來華的耶蘇會傳教士們，利瑪竇、金尼閣、龐迪我等都利用寓言故事進行傳教，并遵循適應主義傳教策略對之進行中國化改寫。此後，1840年英國人羅伯特·湯姆為解決中文教材的不足，與他的中文老師蒙昧先生合作編譯了《意拾喻言》。羅本《意拾喻言》中選譯了81則伊索寓言，頗具中國風格。書中大量引用了中國名物和成語典故，這大大有利於西方人學習中文和了解中國文化。而西方基督教傳教士和中國文人卻更注重它的教育性功能，把它作為啓蒙中國人的有效工具并推廣普及。由此，伊索寓言或多次轉載於19世紀後期的《遐邇貫珍》、《萬國公報》等報刊雜誌，或以《海國妙喻》為名制成單行本出版發行。漢化翻譯策

略的運用使之容易被中國人接受，伊索寓言得以廣泛流行。時至1903年，中國面臨滅亡的危機，近代翻譯大師林紓重新對之進行翻譯，譯名為《伊索寓言》。此版本由上海商務印書館刊行，共選譯298則寓言，還添加了林紓所寫的按語。由于林紓整体上從國際關係和邏輯角度重新詮釋伊索寓言的涵義，使得林本變成了一部易懂的國際政治讀本。可見，在近代中國翻譯文學史上，伊索寓言的漢譯本是在中國本土語境中獲得新生的最佳譯本之一。

주제어 : 伊索寓言, 翻譯, 翻譯規範, 文化適應, 中國化改寫。